

# 「토 오 니」 論

金 宗 炫

目 次

- I 序 言
- II 「토오니」의 社會活動
- III 「토오니」의 社會理論
- IV 「토오니」의 歷史的研究
- V 「토오니」의 歷史研究方法

## I. 序 言

今世紀에 있어서의 最大의 經濟史家의 한 사람으로서 「토오니」(R. H. Tawney, 1880—1962)의 이름을 드는 데에는 별로 異議가 없을 것이다. 「런던」大學 經濟史教授 및 經濟史學會의 初代會長으로서의 經歷은 두 말할 것도 없거니와 名著 『16世紀의 農地問題』(*The Agrarian Problem in the Sixteenth Century*, 1912)라든가 『宗教와 資本主義의 興隆』(*Religion and the Rise of Capitalism*, 1926)을 비롯해서 有名한 「젠트리」論爭을 惹起시키게 되었던 「젠트리」의 興隆』(*The Rise of the Gentry, 1558—1640*, 1941) 등으로 代表되는 그의 一連의 論著는 現代의 經濟史學의 發達에 큰 貢獻을 했던 것이다. 「토오니」는 英國의 修道院 解散으로부터 市民革命에 이르는 約 1世紀를 經濟 社會 政治 및 宗教의 諸側面에서 綜合的으로 把握하고 그것을 現代의 觀點으로 再解釋했다. 한 史家가 適切하게 表現한 바와 같이 그 過程에서 그가 얻은 結論과 問題提起에 의해서 「토오니」는 그 時期를 『「토오니」의 世紀』로 했고 그 時期에 관한 그 後의 研究는 모두가 「토오니」의 結論이라든가 問題를 出發點으로써 그것을 修正 내지 發展시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16·7世紀의 研究에 埋沒해버린 單純한 經濟史家는 아니었다. 萬若 그랬었더라면 그에게 歸屬되는 評價도 스스로 다른 것이 되었을 것이다. 「토오니」는 現代의 問題로서 그리고 現代를 解明하는 하나의 열쇠로서 歷史研究를 했다. 그의 그러한 態度는 다음과 같은 그의 말에 잘 表現되고 있다. 『歷史家의 目的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世界를 理解한다는 것이나 그 世界의 文化的 要素와 歷史的 움직임은 한 生命의 經驗만으로는 充

분히 解釋될 수 없는 刻印과 方向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歷史的 研究는 現代를 研究하는 것이며 그러한 意味에서 ‘모든 歷史는 現代史다’ 라는 逆說에 眞理가 存在하는 것이다. 『토오니』에 있어서는 歷史研究는 單純한 學問的 關心만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實踐的意味를 가지는 것이었다. 그의 歷史研究는 그의 社會活動과 密接하게 關聯되고 있었으며 그 根柢에는 後述하는 바와 같이 깊은 基督敎的인 人間性이 存在하고 있었다. 특히 그의 初期의 研究成果는 그의 實踐活動 속에서 나타난 것이었다.

社會改革者 및 偉大한 經濟史家로서의 『토오니』의 實踐活動이라든가 그의 學問的 業績 全般에 관해서 論한다는 것은 반드시 容易한 일은 아니다. 本稿는 다만 『토오니』의 歷史研究가 어떠한 面에서 그의 實踐活動과 關聯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社會思想은 어떠한 것이며 그의 歷史研究의 內容과 方法은 어떠한 것인가를 그의 主要業績을 中心으로 해서 檢討하고 評價하려는 것이다.

## II. 『토오니』의 社會活動

1880년에 印度의 「캘커타」(Calcutta)에서 誕生한 「토오니」는 英國社會運動의 積極的인 推進者로서 그리고 後에는 偉大한 經濟史家로서 英國을 비롯해서 「유럽」 및 美國의 많은 大學으로부터 名譽學位를 授與받고 많은 나라의 「아카데미」會員 또는 名譽會員으로서 國際的 尊敬을 받았고 1962년에 哀悼되는 가운데 82歲의 生涯를 마쳤다. 우리는 「토오니」의 思想이라든가 그 빛나는 學問的業績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比較的 많으나 社會運動家로서의 그의 實踐活動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적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의 思想이라든가 業績은 어디까지나 社會에 대한 그의 날카로운 洞察力과 社會改革에의 激한 熱情을 隨伴한 實踐活動 속에서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經濟史研究에 있어서 그의 이름을 不朽하게 한 빛나는 學問的業績을 考察함에 있어서 먼저 그의 社會的 實踐活動에 눈을 돌리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이러한 理由에 의한 것이다.

「럭비 스쿨」(Rugby School)로부터 1899년에 「옥스포드」(Oxford)에 進學한 「토오니」는 卒業後 暫時동안 「토인비 홀」(Toynbee Hall)에서 失業救濟와 教育事業에 從事했다. 「페이비안」協會(Fabian Society)가 設立된 해인 1884년에 創立된 「토인비 홀」은 「토인비」(Arnold Toynbee, 1852—1883)를 記念해서 設立된 失業救濟와 社會教育을 위한 施設이며 「옥스포드」出身者들을 中心으로 運營되고 있었다. 이 時期는 英國의 資本主義發展過程에서 나타난 失業 및 貧困의 問題가 社會問題化되고 그러한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서 社會主義的 社會改革運動이 組織的으로 推進된 時期였다. 「토오니」가 在學한 「베일리올 칼리지」(Balliol

College)에는 「토인비」가 있었고 또 後에는 「콜」(G. D. H. Cole, 1889—1959)을 輩出하는 등 進歩的인 雰圍氣를 가지고 있었으니 그것이 學生 「토오니」에게 많은 影響을 주었을 것이라는 것은 充分히 생각할 수 있다. 「토인비 홀」에는 「토오니」의 同級生 「베버리지」(Lord Beveridge)가 있었으며 거기서 「토오니」는 英國勞動運動의 研究에 많은 業績을 남겼고 또한 政治家로서 活躍한 「페이비안」社會主義者인 「웨브」(Sidney James Webb, 1859—1947)와 密接한 交渉을 가지게 되었다. 『내가 어디에 가든 나의 앞에는 그 (「웨브」—引用者)가 서 있었다』라는 말로 보아 「토오니」는 「웨브」로부터 많은 影響을 받고있다고 생각된다.

1905년에 「토오니」는 「맨스브리지」(Albert Mansbridge)등에 의해서 2年前에 設立된 『勞動者教育協會』(Worker's Educational Association)의 執行委員이 되어서 社會政治教育에 從事하는 한편 「모오닝 포스트」(Morning Post)와 其他의 紙上에 論說을 쓰고 있었다. 그동안 그는 「글라스고우」(Glasgow)大學에서 經濟學을 講義하고 (1906—8) 「옥스포드」大學附屬의 個人指導「클라스」에서 講義를 했다(1904—14). 그의 處女作 『16世紀의 農地問題』는 實로 그러한 實踐活動 속에서 나타난 것이다. 1909년에 同期生 「베버리지」의 妹 「안네트 지니」(Annette Jeanie)와 結婚한 後 「토오니」는 1913년에 貧困研究를 위해서 「런던」大學에 設立된 「라탄 타타」財團의 主事に 任命되어 『「체인」製造工業에서의 最低賃金』(Minimum Rates in the Chain-Making Industry, 1914)이라는 研究로서 最低賃金制度의 確立에 貢獻했던 것이다. 他産業에 관한 같은 研究도 豫定되고 있었으나 第1次世界大戰이 勃發되자 1915년에 「토오니」는 한 下士官으로서 從軍해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룩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1916년에 激戰에서 重傷을 입은 「토오니」가 1916년의 「웨스트민스터 가제트」(Westminster Gazette) 紙上에 發表한 戰爭記錄 (이것은 1953년에 그의 論說集 『攻撃』(Attack)에 收錄됨)과 同年 「네이션」(Nation)紙에 發表한 『한 兵士의 回想』(Some Reflections of a Soldier)은 當時 讀者들에게 깊은 感銘을 주었다고 한다.

「토오니」는 1918년에 復興部에 暫時 있었고 同年 「베일리울」의 「펠로우십」(Fellowship)에 選定된 後 1919년에는 「런던 스쿨 오브 에코노믹스」(London School of Economics)의 講師에 任命되고 1931년에 그의 教授로 就任했다. 이 約10年間은 學生指導 및 研究에 못지 않게 政治 教育 宣傳 및 「저널리즘」에서 「토오니」가 가장 活躍한 時期다. 1905년에 『勞動者教育協會』의 執行委員이 되었다는 것은 叙上한 바이나 1928년에는 그 會長이 되어 以後 16年間 그 職에 있는 동안 「만체스터 가디언」(Manchester Guardian)그리고 「뉴우 스테이츠맨」(New Statesman)紙등의 新聞의 많은 論說에 의해서 教育 및 其他의 諸改革을 위한 努力을 行하였다. 그리고 1912년부터는 文敎部諮問委員이 되어 1926년에 主로 그가 執筆

한 青年教育에 관한 報告書는 現在의 中等教育組織의 基礎를 놓았다. 産業政策面에서도 그는 1919 年에 石炭産業委員會委員 그리고 「제인」製造工業委員會委員(1919—1922)을 맡고 또 그 동안 勞動黨所屬으로 두번이나 下院議員選舉에 立候補하고 있다.

그 동안 著作活動도 精力的으로 行해졌다. 主要한 것만을 들어도 1922 年에는 『強欲한 社會』(*The Acquisitive Society*) 1925 年에는 『英國勞動運動』(*The British Labour Movement*) 1926 年에는 「파우어」(Eileen Power, 1889—1940)와의 共編으로된 『「튜더」朝經濟史料集』 全 3 卷 「*Tudor Economic Documents*, 3 vols. —이것은 1914 年에 公刊된 『英國經濟史料選集』(*English Economic History: Select Documents*)과 함께 現在도 英國의 各大學의 「세미나」에서 가장 널리 利用되고 있는 史料集이다—] 1931 年에는 『平等』(*Equality*) 그리고 1932 年에는 前年の 極東旅行의 成果로서 『中國의 土地와 勞動』(*Land and Labour in China*) 등의 諸著書가 뒤를 이어 出版되었던 것이다. 또한 1926 年에 그는 「애슐리」(Sir William Ashley, 1860—1927) 「스콧트」(W. P. Scott) 「파우어」등과 함께 『經濟史學會』(*Economic History Society*)를 創立해서 그 後 7 年間 「립슨」(E. Lipson)과 함께 機關誌 『經濟史評論』(*Economic History Review*)의 共同編輯者로서 活躍했고 1946 年以後에는 그 會長에 就任하고 있다. 그동안 「토오니」는 1942 年에 駐美英國大使館의 經濟 및 社會問題顧問을 歷任했고 1955 年에는 「오스트레일리아」에 旅行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1931 年에 「런던」大學教授에 就任할 때까지 「토오니」는 廣範한 社會運動에 從事했고 그 속에서 그의 社會評論은 물론 빛나는 歷史的研究業績이 뒤를 이어 나타났던 것이다. 처음에 말한 바와 같이 그의 歷史研究는 單純한 「아카데미즘」의 所産이 아니라 그러한 實踐活動 속에서 實踐的 課題로서 遂行된 것이며 그것은 別言한다면 理論과 實踐과의 結合 내지 綜合이라고 불려야 할 것이었다. 그는 社會에서 貧困을 없애기 위해서 積極的으로 實踐活動을 했으나 그것은 英國의 傳統的인 慈善的 救貧政策에 의해서가 아니라 勞動者의 社會的 自覺과 社會改革을 통해서 實現되어야 했던 것이며 그것은 「토오니」를 包含해서 當時의 社會改革者들의 意識的인 運動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現實의 社會를 理論的으로 分析하고 또한 歷史的으로 理解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 III. 「토오니」의 社會理論

「토오니」는 現代社會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 그의 社會觀 내지 社會理論은 1922 年에 出版된 『強欲한 社會』에서 展開되고 있다. 「強欲한 社會」라는 것은 「토오니」에 있어서 두 말할 것도 없이 近代資本主義社會인 것이다.

「토오니」는 資本主義를 다음과 같이 본다. 즉 그것은 『經濟活動이 資本所有者 또는 그의 代理人에 의해서 資本所有者의 貨幣의 利益을 위해서 指導되는 것이 特徵이며 또한 그것은 一群의 技術的인 企劃이고 社會組織의 一形態이고 倫理的인 臆說 및 敎理의 一體系이기도 하며 同時에 이들의 全體로부터 나타나는 文明의 一類型이기도 하다.』 이러한 資本主義體制에서는 權利 특히 財產權이 過當히 尊重되고 있다. 財產이라는 것은 人間의 經濟活動에 의해서 이루어진 結果이며 또 人間生活의 向上에 貢獻한다는 機能을 가져야 하고 生活을 위한 手段에 不過함에도 不拘하고 現代資本主義社會에서는 이러한 關係가 逆轉되어서 財產은 그 自體가 目的化되고 人間이 오히려 手段으로서 그에 從屬되고 있다. 거기에 財產을 가진 人間=資本家와 그 財產의 支配를 받는 人間=勞動者라는 社會階級이 發生하고 그것이 서로 對立하고 있는 것이다. 資本主義의 이러한 特徵은 특히 18世紀以後에 나타난 것이라고 하면서 「토오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事態는 18世紀에 惡化되었다. 神은 無限한 宇宙의 저쪽에 幽閉되고 地上에서와 같이 天上에도 制限君主가 있었다.』 啓蒙思想은 많은 貢獻을 했지만 「스미드」(Adam Smith, 1723—90)와 「콩도르세」(Condorcet, 1743—94)의 原理는 그 後 成長한 經濟體制에는 適應하지 않는다.

資本主義의 一般의 特徵을 『資本所有者의 貨幣의 利益을 위해서 指導』된다는 것과 『財產權의 過當尊重』에서 찾아보는 「토오니」에 있어서는 그것은 社會生活에 있어서 目的과 手段 즉 價値觀이 顛倒된 社會體制이며 따라서 그것은 本然의 體制로 改革되어야 할 것이었다. 거기서 그가 理想으로하는 社會는 職能社會(functional society) 또는 專門的職業主義(professionalism)이라고 불려질 社會體制였다. 19世紀의 思想을 支配한 「權利」(rights)라는 觀念은 早期의 「職能」(functions)이라는 觀念에 代替되어야 한다고 그는 主張한다. 財產은 그것이 生産的勞動에 이바지하는 境遇에만 正當化된다. 그리고 利潤이라든가 특히 獨占都市地代 및 鑛山使用料등은 職能的인 것이 아니므로 排除되어야 한다. 財產에는 人間의 創造的 活動의 結果 이루어지는 것과 아무런 創造的 活動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으며 前者에 대해서는 私有를 認定해야 하나 後者に 대해서는 그것을 認定해서는 안된다. 「토오니」가 머릿속에서 그리는 職能社會에서는 產業은 專門的職業이라는 性格을 띤다. 어떠한 것은 國有化되고 다른 것은 公共自治體 協同組合 또는 職業團體에 의해서 營爲되어야 한다. 거기서 各個人은 自己의 專門的 職業을 통해서 社會에 職能的인 貢獻을 하게 된다. 이러한 職能社會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國家가 重要한 役割을 해야한다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他面 敎會當局(특히 非國敎會)이 社會的 政治的 行動에 관해서 積極的인 責任을 또다시 져야 할 것이다. 바른 價値體系를 確立시키는데 있어서 宗教가 重要한 役割을 해야한다는 것은

後述하는 바와 같이 『宗教와 資本主義의 興隆』에서도 크게 暗示되고 있는 것이다.

「토오니」의 社會政治理論은 1931년에 出版된 『平等』에서 一層 展開된다. 거기서 그는 英國에 있어서 特權이 한 役割이 僅少했기 때문에 그의 階級構造가 革命前의 佛蘭西에 있어서와 같이 深刻한 階級對立을 結果하지 않았고 그것이 英國으로 하여금 經濟發展의 先驅者로 했다고 指摘하면서 그러나 그러한 階級分化의 曖昧性이 佛蘭西에서 爭取한 平等이라는 福音을 英國에서 實現시키지 못하게 한 條件이라고 본다. 거기서 그러한 平等을 實現하는 方法으로서 그는 團體組織에 의한 社會奉仕의 擴大를 強調한다. 그래서 그는 金錢的 所得差를 認定되 累進課稅를 더욱 推進해야 되며 그렇지 않으면 貧富의 隔差가 深化되어 平等을 實現하지는 못하게 된다. 그는 또 한 社會集團이 다른 集團에 대해서 行使하는 權力을 制限하기 위해서 勞動組合 및 產業立法의 擴大를 要求했다. 이러한 立場에 있는 「토오니」에게는 近代資本主義가 이룩한 成果보다도 그 弊害가 注目되었던 것이며 그러한 弊害를 除去하고 社會正義를 向上시키기 위해서 團體組織에 의한 社會的奉仕와 國家에 의한 產業立法이 必要했던 것이다.

社會的 正義를 實現시키기 위해서 團體組織과 國家의 役割을 重視하는 「토오니」의 思想은 「언윈」(George Unwin, 1870—1925)으로 代表되는 「만체스터」(Manchester)의 自由主義思想과는 明確히 다른 立場에 속하는 것이었다. 「언윈」은 國家의 規制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人間을 한더미로 取扱하는 모든 社會改革의 試圖을 매우 싫어한다. ... 나는 高等教育에 관한 國家規制와 같은 것을 매우 憂慮한다.』 「언윈」에게는 委員이라든가 選民이 人間의 보다 높은 生産을 管理할 수 있다는 것은 到底히 믿지 못할 일이었다. 이에 대해서 「토오니」는 公的奉仕를 強調하고 立法을 社會進步의 主要手段으로 보고 있는 것이며 『그것이 暴君을 制禦할 수 있고 大產業封臣을 規制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立場의 相違에도 不拘하고 兩者間에는 親近性이 있었고 「언윈」의 死後 「토오니」는 1925년에 「언윈」의 뒤를 이어 每週 「만체스터」에 가서 그의 經濟史講義를 完結했으며 「언윈」의 論文 및 「노트」를 蒐集하고 거기에 自己自身の 序文을 붙여 出版함으로써 그에 대한 敬意를 表했던 것이다.) 「토오니」의 勞動組合과 產業立法을 위한 積極的인 實踐活動은 이와같은 그의 社會政治理論의 뒷받침을 받고 遂行된 것이다.

#### IV. 「토오니」의 歷史的 研究

이러한 社會政治思想에 立脚해서 그것을 實現시키려고 한 努力이 「토오니」의 社會活動으로 結果되었던 것이며 現代的 諸問題는 그에 있어서는 歷史研究속에서 理解되어야 할 것

이었다. 名著『16世紀의 農地問題』는 그와같은 背景에서 나타난 것이었다. 그것은 價値 높은 勞作으로서 激讚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토오니」의 學者로서의 地位는 確立되었다. 그것은 內容的으로만이 아니라 「토오니」의 立場과 그의 歷史研究의 方向을 示唆해준다는 點에서도 重要한 것이다.

『16世紀의 農地問題』에서 著者는 16世紀에 營利主義가 農村에 浸透함으로써 慣習的 農業이 崩壞하게 되었으며 그 結果 中産的 農民層=「요오맨」層이 沒落하고 資本家的 借地農이 成長했다——「토오니」는 英國農業制度의 特徵인 三分制의 起點을 여기에 둔다——는 것을 詳細하게 그리고 動的으로 論證하고 있다. 農村構造에 變化를 가져온 直接的인 契機는 두 말할 것도 없이 耕地의 牧場에의 轉換을 隨伴한 「인클로우저」運動이었던 것이다. 특히 本書에서 重點的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當時 英國農民의 典型이라고 할 수 있는 「요오맨」層의 解體過程이다. 「토오니」는 農民에 대한 깊은 同情을 가지고 이 問題를 다루고 있는데 그에게는 當時의 農民의 苦情은 現代의 勞動者의 苦惱에 통하는 것이었다. 「게이」(E. F. Gay, 1867—1946)의 數量的 研究에 의해서 形成된 16世紀의 「인클로우저」의 範圍에 관한 通說이 誇張이라고 해서 無視한 當時의 激高된 反「인클로우저」輿論 및 農民의 苦情은 「토오니」에게는 各各 그런대로의 評價를 받고 있다. 그는 말한다. 『(「인클로우저」에 의해서) 50「매너」에서 한 農民씩 退去하는 것과 한 「매너」에서 50名의 農民이 追放當하는 것과는 當該州에서 追放된 農民總數를 計算할 때에는 전혀 같은 統計的 結果를 낳는다. 그러나 前者는 거의 注目되지 않는 것이나 後者는 한 村落을 破壞할 것이다.』換言하면 兩者가 가지는 社會經濟的 影響에는 根本的인 差異가 있는 것이다. 「토오니」는 經濟史研究에 있어서의 統計的 分析의 價値는 充分히 認定하지만 統計萬能主義에 빠지는 것은 이것을 警戒하고 있다. 그에게는 社會變化의 統計的 結果보다도 當時의 사람들이 그 變化를 어떻게 받아들였고 그의 社會經濟的 結果는 어떤 것이었던가라는 問題가 보다 重要한 것이었다. 그리고 16世紀의 農民問題를 考察함에 있어서 重要한 것은 經濟的 要因만이 아니라 法制的 그리고 政府의 立法的 要因까지 考慮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오니」는 『自由保有農의 財產을 增大시키고 定期借地農 및 慣習小作農의 財產을 減少시킨 決定的 要因은 王國에서는 經濟에서가 아니라 法律에서 發見되어야 한다』는 것을 強調하고 慣習保有農들의 衰退 要因을 慣習的 保護의 弱화에서 찾고 있다. 또한 政府에 의한 立法措置의 重要性을 強調하면서 그는 政府가 慣習保有를 法的으로 自由保有와 같이 取扱했다라면 諸變化는 大地主에 의한 「인클로우저」라든가 人口減滅을 隨伴하지 않고 緩慢하게 進行했을 것이라고 指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토오니」의 歷史認識은 어떠한 歷史現象을 한가지의 基本的 命題에 비추어서 分析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關聯있는 모든 側面으로 接近한다는 方法을 取하고 있으며 여기에 後述하는 바와 같이 歷史를 綜合적으로 認識하려는 그의 立場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叙上한 바와 같이 『16世紀의 農地問題』에서 著者が 追求한 것이 現代의 勞動者와 關聯시켜서 16世紀農民層의 解體過程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解體를 惹起시킨 主體는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다름아닌 「젠트리」(gentry)였다. 「라스키」(H. J. Laski, 1893—1950)가 말한 바와 같이 20世紀에 이르기까지 約 3世紀間의 英國의 支配階級은 「젠트리」였으며 그들의 興隆過程을 究明한다는 것은 「토오니」의 問題意識으로서는 當然한 歸結이었다. 20世紀初頭に 있어서의 英國의 支配階級과 被支配階級과의 關係는 歷史적으로 16・7世紀의 「젠트리」와 農民과의 關係에 投影시켜서 볼 수가 있다. 「토오니」에게는 「젠트리」의 研究도 그의 現實的 關心과 關聯되는 것이었던 것이다.

「토오니」는 일찌기 1925년에 「토마스 윌슨」(Thomas Wilson)의 『高利論』(A Discourse upon Usury)를 復刊했을 적에 添付한 長文의 解說에서 16世紀後半에 廣義의 「젠틀맨」(gentleman)이 窮乏했다고 主張하고 있다. 그 後 16년이 지난 1941년에 『해링턴』의 同時代 解釋』(Harrington's Interpretation of His Age)라는 題目으로 行한 講演에서 「토오니」는 市民革命以前의 2世代동안에 「젠틀맨」이 重要한 地位를 獲得하게 되었다고 主張함으로써 舊說을 修正하고 그러한 事實은 當時의 著者인 「해링턴」이 이미 指摘하고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이와같은 先行하는 社會的 變化속에 政治的 大變動의 原因을 찾아낸 最初의 英國의 經濟思想家가 「해링턴」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着想을 充分히 展開한 것이 同年 『經濟史評論』(Economic History Review)誌에 發表된 有名한 論文 「「젠트리」의 興隆」(The Rise of the Gentry, 1588—1640)이었던 것이다.

「「젠트리」의 興隆」에 있어서의 「토오니」의 基本的 「테제」는 16世紀後半期로부터 市民革命期에 이르는 동안에 「젠트리」가 貴族의 犧牲위에서 興隆하고 이와같은 社會經濟構造의 變化가 市民革命에 歸結하는 政治的 緊張을 惹起시켰다는 것이다. 16世紀에 있어서의 營利主義의 普及과 價格革命은 社會經濟構造에 큰 影響을 미치게 되었다. 즉 『農業革命』이며 이러한 事態에 直面해서 多數의 貴族은 그 收入이 比較的 固定하든가 또는 實質적으로 減少하는데 豪華로운 消費生活로 인한 浪費라든가 政治的 愚行으로 말미암아 支出이 增大해서 窮해졌다. 若干의 貴族은 滿期가 된 贖本保有의 更新을 拒絶함으로써 小自由保有地를 購入하고 그것을 定期借地로 높은 地代를 받아서 貸出함으로써 荒蕪地 및 共同地를 圍



瞻함으로써 進歩的인 所領經營을 함으로써 그리고 森林 및 鑛山을 開發함으로써 이러한 事態에 對處할 수가 있었으나 大多數의 貴族은 그러한 意思도 能力도 없었던 것이다. 한편 國王은 國家財政上 王領地를 賣却하고 그것이 消滅함에 따라서 收入이 減少하고 그의 權威도 失墜했다. 또한 下層에 있는 「요오맨」은 長期의 借地期間이 滿期가 되고 地主가 收入增加策으로 地代를 引上시키고 權利金을 引上시키게 되자 衰退하게 되었다.

貴族 國王 그리고 「요오맨」의 犧牲위에서 혼자 興隆한 것은 小土地所有者 官職保有者 法律家 商人 其他 富裕한 사람을 包含하는 「젠트리」層이었다. 그들이야말로 낡은 傳統에 束縛됨이 없이 새로운 經濟的 條件에 積極的으로 對處해갔던 進取的인 新興「부르조아」이며 그들은 合理的 農業經營 商業活動 官職保有 自由職業을 통해서 收入을 增加시키고 貴族 國王 그리고 「요오맨」으로부터 土地를 購入하고 經濟的인 支配階級으로 君臨하게 되었던 것이다. 새로운 經濟的 支配階級の 擡頭에 의해서 結果된 經濟構造는 舊支配階級이 支配하는 政治構造와 必然的으로 衝突하게 되는 것이라서 英國의 市民革命은 그에 先行한 經濟的 變化의 政治的 表現이었던 것이다.

「젠트리」論에 있어서의 「토오니」의 「테제」에 관해서는 그 後 贊否兩論이 갈려져서 華麗한 論爭이 展開되었다. 특히 「토오니」와 「트레버-로퍼」(Trevor-Roper)와의 論爭은 英國의 「애카데믹」한 論爭에서는 보기드물 程度로 熱을 띤 것이었다. 「트레버-로퍼」는 「토오니」가 貴族의 衰退를 表示하는 것으로서 利用한 貴族들의 「매너」減小에 관한 數字를 批判하면서 貴族과 「젠트리」라는 區分이 行해지는 限 兩者의 經濟的 條件은 같은 것이었다고 指摘하고 오히려 有意義한 分類는 宮廷「젠트리」(court gentry)와 地方「젠트리」(country gentry) 또는 官職保有者와 單純한 土地所有者와의 區分이라고 한다. 그래서 經濟的으로 興隆한 것은 宮廷「젠트리」 또는 官職保有者이며 其他의 單純한 「젠트리」(mere gentry)는 困窮했다. 前者는 그 經濟的 및 政治的 힘을 貴族과 農民과의 犧牲 위에서가 아니라 國王의 犧牲에서 獲得한 것이며 市民革命에서 主導的 役割을 한 獨立派의 사람들은 興隆하는 「젠트리」가 아니라 衰退하는 「젠트리」의 一部였다고 主張한다. 즉 「트레버-로퍼」에 있어서는 市民革命 = 淸教徒革命(Puritan Revolution)은 衰退하는 「젠트리」의 絶望的인 抵抗의 結果였던 것이다. 이와같은 正反對의 立場에 선 批判에 대해서 「토오니」는 『「젠트리」의 興隆·後記』(The Rise of the Gentry: A Postscript, *Economic History Review*, 2nd series, vii, 1954)에서 自說을 再確認하고 있다. 『「젠트리」의 興隆』이라는 問題에 관해서는 「스톤」(Lawrence Stone)을 비롯해서 「쿠퍼」(J. P. Cooper) 「헉스터」(J. H. Hexter)등에 의해서 그야말로 『「젠트리」에 관한 颱風』(storm over the gentry)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젠트리」論은 아직도 最終的인 結論에 到達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그것은 어떻게 「토오니」는 그의 「젠트리」論의 部類에 歸屬되어야 할 最後의 著書를 1958年에 出版했다. 『제임스』—世治下의 事業과 政治』(*Business and Politics under James I: Lionel Granfield as Merchant & Minister*, 1958)가 그것이다. 本書에서 著者는 17世紀初頭に 있어서의 經濟的 및 政治的 狀態를 明白히 하고 그 속에서 積極的인 役割을 한 어떤 商人의 活動을 生생하게 描寫하고 있다. 大陸과의 貿易에 從事함으로써 富를 蓄積한 後 政治에 關與하여 기울어져가는 國庫收入을 바로잡기 위해서 奮闘하다가 結局에는 한 貴族의 政治的 壓力으로 失脚하게 된 商人이며 政治家인 「그랜필드」의 모습이야말로 疑心할 나위도 없이 當時 興隆하고 있던 中產階級 「젠트리」의 모습이었다고 생각된다.

「토오니」에 있어서는 또한 經濟的 및 社會的 側面과 함께 精神的 내지 宗教的 側面도 重要한 것이었다. 18世紀 내지 19世紀의 合理主義는 結果的으로 物質優先이라는 思想을 낳고 世俗的 問題로부터 宗教를 完全히 乖離시키고 結局에는 通俗的인 物質主義에 빠져버렸다. 그 結果 近代社會에 있어서의 價値의 喪失 또는 價値觀의 顛倒라는 現象이 나타나게 되고 그에 隨伴해서 나타난 政治的 社會的 및 經濟的 諸問題가 사람들로 하여금 宗教에 基礎를 둔 社會倫理의 實踐의 意義를 또다시 強調시키게 했다. 19世紀末에서 부터 20世紀初頭に 나타난 基督敎的 社會改革運動은 그러한 觀點에서 價値觀의 再確立을 企圖한 것이었다.

그러면 歷史的으로 宗教가 世俗的인 問題로부터 乖離하게 된 것은 언제였는가? 이 問題에 관해서 가장 重要한 時代는 16世紀 내지 17世紀였다. 거기서 「토오니」는 宗教思想이 世俗問題에 관해서 取한 態度的 變化를 考察하는 것이나 그것은 단지 『尙古主義가 아니라 잠자고있던 問題를 喚起시키는 것』이며 中世基督敎會의 理想과 近代初頭の 「휴머니스트」 및 改革者들의 思想을 再檢討해서 再評價한다는 것은 바로 現代의 實踐的 課題와 直結되는 것이었다. 『宗教와 資本主義의 興隆』은 바로 「토오니」의 그와같은 現實的 問題意識의 所産이었던 것이다. 本書는 「토오니」가 1922年에 神學者 「홀란드」(Henry Scott Holland, 1847—1918)의 第1回 記念講演會에서 行한 講演을 基礎로해서 4年後인 1926年에 出版된 것이다.

宗教와 資本主義에 관해서는 이미 「쾨바르트」(Werner Sombart, 1863—1941) 「브렌타노」(Lujo Brentano, 1884—1931) 그리고 「막스 웨버」(Max Weber, 1864—1920)등에 의해서 論議되고 있었다. 「토오니」는 그가 이 問題에 興味를 가지게 된 것은 「웨버」에 의해서 보더라도 「애슬리」(Sir William Ashley, 1860—1927)에 의해서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프

로테스탄티즘의 倫理와 資本主義의 精神』이라는 「웨버」의 有名한 「테제」가 어떠한 意味에 있어서든지 英國의 學界에 큰 反響을 일으켰을 것이라는 것은 充分히 想像될 수 있다.

「토오니」에 있어서는 「資本主義精神」은 아무런 制約을 받지 않은 營利心이며 「웨버」에 있어서와 같이 그것이 하나의 義務로서 倫理化될 必要는 없다. 따라서 「토오니」의 資本主義精神觀은 「쾨바르트」와 「브렌타노」의 그것과 相通하는 것이며 「토오니」에 의하면 資本主義精神은 15世紀의 「베니스」(Venice) 「플로렌스」(Florence) 南獨逸 및 「플란더즈」(Flanders)에서 盛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宗教 특히 「프로테스탄티즘」과 資本主義는 如何한 關係에 있었던 것인가. 이 問題에 관해서 「토오니」와 「웨버」와의 사이에는 큰 見解의 差異가 있다. 그리고 「理念型」에 의해서 歷史認識을 하려는 「웨버」와는 달리 「토오니」는 歷史家로서 具體的 事實에 重要性을 두고 當時의 經濟狀態의 背景에 비추어서 宗教의 經濟思想을 考察한다는 方法을 取하고 있다.

「토오니」는 「루터」(M. Luther, 1483—1546)의 教義를 非資本主義的인 것으로 본다. 그리고 「칼방」(Calvin, 1507—1564)의 社會經濟思想에도 그 絶對的 神觀으로 由來하는 嚴格한 干涉主義 祭政一致主義 教會萬能의 專制主義의 傾向이 強했으며 他面에서 資本主義的 傾向도 있었으나 그것은 그의 教義로부터 보다도 當時의 經濟狀態를 그대로 承認한 그의 實際的 性格으로 由來하는 것이다. 즉 本質적으로 干涉主義的인 「칼방」의 教義에 資本主義的 傾向이 나타난 것은 當時의 資本主義 發展의 結果에 不過한 것이다. 이와같은 두가지 要素는 英國에 있어서의 新「칼방」派 즉 淸敎主義에서도 認識되는 것이며 거기서도 根本的으로는 그의 保守的 性格이 強했던 것이다. 그것이 16世紀末葉부터 漸次로 經濟活動의 自由가 主唱되고 그것이 市民革命에 의해서 確立되는 것이며 淸敎主義의 保守的 性格을 克服해서 經濟的 自由가 確立되는 것은 當時의 經濟的 發展의 結果에 不過하다. 즉 商業의 發達 重商主義 獨占과 特權 등이라는 狀態에 있어서 宗教上 國權으로부터 排除된 新興의 中産階級은 宗教的 政治的 自由와 함께 經濟的 自由를 要求해서 躡起했던 것이며 그것이 教會에 의한 規制를 벗어나서 淸敎徒들로 하여금 近代의 資本主義의 擔當者로 만들었던 것이다. 「토오니」는 또한 經濟活動의 自由를 傳統的 束縛으로부터 解放함에 있어서 重要한 貢獻을 한 것은 「프로테스탄티즘」以外에도 「브렌타노」가 指摘하는 바와 같이 「마키아벨리」(N. B. Machiavelli, 1469—1527)로 代表되는 文藝復興時代의 政治思想과 實業家 및 經濟學者의 貨幣 價格 및 外國貿易에 관한 思想이 있다고 主張하고 있다. 反動主義者라는 烙印이 찍혀온 「스콜라」哲學者들은 自由로운 知的 運動의 先驅者였던 것이다.

「토오니」에 있어서는 淸教徒의 儉約 勤勉 節制 責任이라는 觀念은 社會的 義務라는 觀念을 退化시키고 그 結果 16·7世紀부터 시작된 宗教的 制約으로부터의 經濟的 自由의 解放이 18·9世紀의 合理主義 自由放任主義로 成長해서 價值觀을 喪失한 通俗的인 物質主義에 빠져버린다는 恨嘆스러운 結果를 가져왔던 것이다.

이렇게 轉倒된 價值觀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近世以前의 宗教와 社會의 問題를 새로이 考察해 볼 必要가 있다. 「토오니」는 中世社會의 現實의 矛盾을 無視하는 素朴한 中世主義者는 아니었으나 19世紀의 思想家들이 傳統的인 것 非合理的인 것이라고 해서 排斥했던 中世의 思想과 社會를 正當하게 評價하려고 한다.

여러가지 社會制度和 經濟關係로 構成된 世界에 대해서 宗教思想이 取하는 態度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토오니」는 말한다. 즉 첫째 禁欲的 無關心의 態度이고 社會로부터 超然하고 있으며 社會制度 및 經濟關係를 不義한 것의 領域이라고 看取하는 態度, 둘째 그들은 認定하나 宗教와는 아무런 關係가 없다고 보는 無關心主義, 셋째 改革 正義 그리고 究極的인 革命을 促進하기 위해서 한 運動에 몸을 바치는 熱情, 넷째로 外的 秩序와 宗教와의 綜合을 希求하는 態度이다. 이들의 態度 중에서 가장 特徵的인 것은 넷째의 態度이며 16世紀가 繼承한 第一의 根本命題는 人間의 諸制度和 活動의 究極의 標準이 宗教라는 것이다. 16世紀에 宗教는 새로운 禁欲主義에 의해서 새로운 社會秩序=資本主義에 대했던 것이지만은 資本主義의 發展에 따라서 結局 無關心主義에 빠지고 宗教와 經濟는 전혀 無關係한 것이 되어 버렸던 것이다.

現代에 있어서의 物質主義 즉 價值觀의 顛倒是 經濟에 대한 宗教의 無關心主義의 結果이며 거기서 「토오니」는 現代의 그와같은 矛盾을 解決하기 위해서 宗教는 16世紀에 한 禁欲的 鬪爭과 같은 情熱을 가지고 또다시 努力해야 한다고 暗示하는 것이다. 『宗教와 資本主義』도 실로 「토오니」의 現代의 問題意識의 產物이었으며 거기서 우리는 著者의 깊은 基督教의 「휴머니즘」을 感知할 수가 있을 것이다.

## V. 「토오니」의 歷史研究方法

「그라스」(N.S.B. Gras, 1884—1956)는 1927년에 從來의 經濟史研究가 너무나 個別的 實證的이어서 無味乾燥해지고 있다고 指摘하고 그러나 數 많은 經濟史家 중에서도 「토오니」만은 唯一한 例外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 經濟史家로서의 「토오니」의 그러한 魅力은 어디에 있었던가. 이러한 設問에 解答하기 위해서는 그의 모든 面이 全般的으로 考察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러한 餘裕가 없으므로 그의 歷史研究의 根柢에 存在하는

「歷史觀」 및 研究方法 그리고 研究成果의 意義를 考察함으로써 이 問題에 接近하자.

一般的으로 獨逸의 學者와는 달리 英國의 學者는 그들의 經驗主義의 傳統에 따라 方法論을 새삼스럽게 展開한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므로 그 歷史觀이라든가 方法論을 考察할 때에는 그의 著作 一般속에서 그들을 理解하지 않으면 안된다. 「토오니」의 境遇도 그 例外는 아니며 우리는 叙上한 諸論著에서 그들을 어느 程度는 理解할 수 있을 것이다. 그위에 多幸하게도 우리는 「토오니」가 自身の 歷史觀과 歷史研究方法을 展開한 論著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1932년에 그가 한 教授就任講義의 草稿이며 다음 해에 論文으로 發表된 「經濟史의 研究」(The Study of Economic History, *Economica*, 1933)이다. 우리는 이 論文을 통해서 그의 歷史觀과 歷史研究方法을 어느 程度 窺知할 수 있을 것이다.

「토오니」에 의하면 歷史家의 任務는 相異한 諸條件과 環境에 있어서의 社會의 行動을 觀察함으로써 相異한 類型의 文明의 諸特徵을 規定하고 變化의 起動力을 發見하고 各時代에 自明의 것으로서 容認된 敎理를 豊富한 經驗에 비추어서 批判하는 것이다. 그리고 經濟史家의 任務는 限定된 資源에서의 生計維持에 관한 諸關心 거기서 由來하는 社會集團 그리고 그들이 惹起시키는 諸問題에 特別한 關心을 가지고 歷史家가 遂行하는 任務를 遂行한다는 데에 있으며 그것은 究極의으로는 한 世代 또는 한 社會의 經驗으로부터 人類의 經驗으로 觀察範圍를 擴大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經驗은 그것을 단지 認識하는 것만이 아니라 解釋함으로써 비로소 敎訓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歷史家의 任務는 어떻게 遂行되어야 할 것인가? 換言해서 그 研究方法은 어떠한 것인가? 「토오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歷史는 過去의 一連의 事件과 關係하는 것이 아니라 社會生活과 關係하는 것이며 그 目標을 위한 하나의 手段으로서 過去의 記錄과 關係하는 것이다. 事件의 序列은 하나의 실마리 以上の 것은 아니다. 檢出해야 할 重要한 것은 단지 어느 주어진 時期에 있어서의 特定社會의 特異성이 아니라 特定時間 및 空間이라는 背景에서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에 限定되지 않는 特徵과 傾向이다. 研究의 過程은 事實의 認識만이 아니라 比較 對照 및 分析을 包含하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當該社會에 관한 理解를 한 時點에서가 아니라 全生活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토오니」에 있어서는 특히 比較研究라는 것은 歷史研究에 있어서 重要한 方法이었다. 歷史의 一般化는 人類學이라든가 社會學에서의 一般化와 같이 普遍妥當性을 主張하는 命題라는 形態를 取하는 것이 아니라 特定時代의 文明機構 내에서 일어나는 歷史的 諸事象間의 關係를 記述한다는 形態를 取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比較와 分析은 重要한 方法인 것이다. 例를 들면 西洋人の 經濟生活에 共通한 特徵을 賦與하는데에 있어서 環境의 類似

性만이 아니라 移住 競爭 및 直接的模倣등이 큰 役割을 했던 것이다. 그러한 狀態下에서는 比較研究는 類似性과 對照性의 關係를 明白하게 해주는 것이며 그러한 理解없이는 過去の 經濟生活의 展開도 現在의 特徵도 理解할 수 없다. 比較研究는 西洋내에서만이 아니라 中國 및 「러시아」등 다른 地域의 研究에서도 教訓的이다. 『萬若에 研究者가 英國 獨逸 美國에서 工業發展을 促進시키고 佛蘭西에서 그것을 遲滯시킨 諸條件을 모른다면 中國 및 「러시아」에서 現在(1930年頃——引用者) 行해지고 있는 매우 對照的인 産業革命을 重要視할 수는 없을 것이다.』

研究는 하나의 手段이지만 目的은 아니다. 經濟史研究에 있어서는 새로운 史料를 發見한다는 것도 重要하지만 現存하는 史料의 意味를 理解하는 것은 더욱 重要的인 일이다. 史料取扱에서 經濟史家는 經濟理論과 社會學에서 利用되는 諸概念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여기에 經濟史研究는 經濟理論 및 社會學과 密接한 關聯을 가지고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經濟史家와 經濟理論家와의 사이의 展望은 다른 것이며 그것은 같은 問題의 解釋의 差異에서 由來한다기 보다는 前者는 後者가 그의 專門的 關心에 의해서 比較的 簡單히 取扱한 것을 考慮에 넣어야 한다는 事實에서 由來하는 것이다. 첫째로 經濟史家는 經濟以外的 諸要素가 經濟發展에서 한 役割을 無視할 수는 없다. 즉 法制 政策 科學의 文化的 成果 階級構造 戰爭體制등의 積極的 및 消極的 諸要素를 考慮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로 經濟史家의 視野의 範圍는 理論家의 그것과 다르며 그 相異가 景觀의 相異한 面을 顯著하게 하고있다. 즉 後者는 比較的 短期를 다룸으로써 制度的 構造를 所與의 것으로 보는 데 대해서 前者는 그것을 歷史的 產物로 보고 過去에 變化했고 將來에도 變化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叙上한 바와 같은 「토오니」의 歷史研究方法은 곧 그의 歷史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의하면 經濟文明은 國際的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經濟史는 모든 形態의 歷史 中에서도 가장 「내셔널」한 性格이 적은 것이다. 그리고 經濟史는 主要한 主題로서 各各 다른 國家에 共通한 運動과 問題의 比較的研究——例를 들면 大工業의 發展 또는 農業發展의 比較研究——를 해야하며 特定國에 特有한 現象은 國際的인 넓은 背景에서 檢討되어야 한다. 또한 經濟史家는 生活의 經濟的 側面에 대해서 政治와 宗教의 世界에서 나타난 變化가 미치는 影響을 無視해서는 안된다. 『唯一한 適切한 歷史는 綜合史(l'histoire intégrale)이며 專門의 限界는 經濟的基礎 政治的上部構造 및 理念의 力學을 公平히 다루는 論述에 의해서 비로소 克服되는 것이다.』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토오니」는 歷史는 綜合史라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또

한 結局에는 社會生活의 어느 局面을 다루고 있으므로 넓은 意味의 社會史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經濟史研究가 社會史와 直接連結된다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다. 經濟事象은 그 自體 孤立해서 現象하는 것이 아니라 政治的 社會的 法制的 및 精神的 諸事象과의 關聯에서 現象하는 것이므로 그 研究에 있어서는 勿論 經濟事象에 重點을 두지만 同時에 그에 影響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다른 諸事象도 究明되어야 한다. 「토오니」는 『16世紀의 農地問題』에서 經濟的 諸力과 함께 社會的 政治的 및 法制的 側面을 重視했던 것이며 거기에 우리는 社會經濟史의 研究의 綜合的인 成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토오니」에 있어서는 經濟史家는 個個의 歷史事象의 特異性을 實證的으로 提示하는 한편 「比較」「對照」「分析」에 의해서 그의 一般의 特徵과 傾向을 提示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여기에 「토오니」의 歷史에 있어서의 綜合의 立場이 明確히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은 그의 歷史研究에서 一貫해서 흐르고 있는 것이다.

「토오니」의 歷史的 研究는 以上에서 말한 그의 歷史觀 및 研究方法을 基礎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優秀한 著書는 한 文章으로 要約될 수 있다고 하지만 「토오니」의 著書는 어느 것도 이러한 怪疑한 基準에 適應하지는 않으며 全體로서의 그의 歷史論을 抄錄할 수는 없다』고 「애슈턴」(T.S. Ashton)이 말하는 바와 같이 「토오니」의 歷史觀을 例를 들면 「마르크스」(K. Marx, 1818—83)의 그것과 같이 端的으로 提示할 수는 없다. 그의 歷史研究가 實踐的 活動과 密接한 關聯 밑에서 行해졌다는 것은 叙上한 바이지만 그는 現代의 諸問題를 解釋하는 열쇠로서 16·7世紀를 中心으로 한 歷史研究에 從事했다. 말하자면 그는 現代資本主義의 諸問題를 그 起源에 遡及해서 考察하고 있는 것이다. 그 問題를 解明하기 위해서 「토오니」는 經濟問題를 中心으로 해서 政治的 法制的 社會的 및 宗教的 側面을 問題로 했던 것이며 그 成果가 具體的으로는 위에서 言及한 諸論攷로 나타났던 것이다. 『「토오니」의 世紀』는 16·7世紀에 관한 그의 이러한 綜合的 研究에 주워진 讚辭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토오니」의 廣範한 綜合的 研究에 의해서 만이 아니라 그것을 眞正한 『「토오니」의 世紀』로 한 것은 이 時期에 관한 그의 歷史解釋 및 問題提起였다. 그의 諸結論은 批判되고 반드시 定說化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論敵이었던 「트레버-로퍼」가 말하는 바와 같이 그의 偉大함은 그의 結論이 모두 올바르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提起한 問題와 그의 銳利한 歷史的 直觀에 있었다. 「토오니」는 歷史的 正說의 脆弱함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모든 生物은 시들며 그 중에서도 歷史家는 可憐하게도 일찍 시든다.』 「토오니」가 提起한 問題는 그後 많은 經濟史家에 의해서 더욱 깊이 研究되고 있으며 그의 結論은 再確認되어서 보다 豊富한 內容이 주어진다든가 또는 修正되고 있다. 또한 「토오

니]의 結論에 反對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無視하기는 커녕 그에 對答하는 形式으로 研究를 進行하고 있는 것이어서 16·7世紀에 관한 研究는 어떠한 立場에 있든간에 「토오니」의 影響으로부터 完全히 自由롭지는 못한 것이다.

오늘날의 歷史研究가 매우 細分化되고 個個의 歷史事象에 관해서는 具體적으로 詳細하게 研究되고 있으나 자칫하면 그것이 가지는 歷史的 意義를 찾아보지 못하는 傾向에 있는 現狀에 있어서 그들의 成果를 比較해서 解釋한다는 「토오니」의 綜合的 歷史研究方法은 注目되어야 할 것이다. 「그라스」가 말한 經濟史家로서의 「토오니」의 魅力은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筆者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韓國經濟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助教授〕

---

\* 歷史研究와는 直接的 關係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歷史叙述에 있어서의 文學的 側面도 「토오니」에서는 重要的 것이었으며 그 點에서는 「트레벨리안」(G. M. Trevelyan)과 相通한다. 「애슈턴」은 때로는 한 文章이 一面全體를 차지하는 「토오니」의 文章은 難解하지만 그것은 「밀턴」(John Milton, 1608—74) 및 「메레디드」(George Meredith, 1828—1905)의 文章을 聯想케 한다고 말하고 있다.